

主要 古農書를 통한 朝鮮時代의 稻作技術 展開 過程 研究 I. 問題 提起, 研究方法 및 範圍의 設定

李崇謙* · 具滋玉** · 李殷雄*** · 李弘祐***

Transition of Rice Cultural Practic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Old References I. Setting of Topics, Methods, and Scopes

Sung Kyum Lee*, Ja Ok Guh**, Eun Woong Lee*** and Hong Suk Lee***

ABSTRACT : The rice culture, the most representative farming in humid regions of East Asia, have been playing a decisive role in supplying finance and staple food of the nations. This situation must be formed with exchange of techniques and interests in the matter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Especially Korea was obligated to play a bridge role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thereby the situations of agriculture were repeatedly reclaimed, and recovered by changes of cultures during external aggression, and internal disturbances. Thus, it is obvious that development of rice culture and its techniques was being undaunted in Korea. Nevertheless, in history of Korea, the documents of the government on chronicles of the dynasty were plentiful, while they were very poor in countryside and rural communities, so that it is very hard to search the transition process of rice culture and its techniques. Finally, the faming books that were begun editing from the early Chosun dynasty are here divided chronically and examined, and also the interrelationships are compared and discussed he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iscuss the following questions : How were the dryfarming techniques, introduced from the ancient China by the end of Koryo dynasty, established to fit for our situations? What were the basis for reestablishment of the techniques with originality? How were they continued and changed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wars in the Chosun dynasty? What were suggested from these continuously results by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民族文化는 東西洋을 막론하고 제나름대로의 農耕樣式과 農耕文化를 形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地理上으로 부여되는 自然與件의 特性에 따라 休閒農法과 中耕農法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西洋農法으로 代辯되는 粗放農法, 그리고 東洋農法으로 代辯되는 集約農法이 分化되었으며,¹⁾ 오랜 歲月을 거치는 동안 牧畜農과 穀作農이 오늘날의 兩大農法類型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地域間의 農耕文化뿐만 아니라 人間生活 類型까지도 進取的 혹은 保守적으로 만들었고, 食生活樣式을 動物性 蛋白質 혹은 植物性 炭水化物 爲主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

다.²⁾ 이렇게 農業과 農業生産力은 그 地域社會의 文化와 함께 歷史적으로 한 國家의 人口, 財政과 勢力, 興亡과 盛衰의 基礎를 구축하는 根本이었으며, 따라서 “農者 天下國家之大本”으로 認識되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近世 以後, 수많은 아시아 및 後進國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農業과 農耕文化는 日帝時代를 轉機로 하여, 우리 本然의 모습과 方式을 喪失한 채, 한때에는 日本 本土의 戰爭을 위한 產米運動으로 日本式 農法을 直輸入하지 않을 수 없었고, 最近에는 國民食糧의 自給을 위한 增產政策으로, 그리고 國際競爭力의 弱勢에 便乘

* 新丘學園 (Shingu Acad. Found)

** 全南大學校 (Chonnam Nat'l. Univ)

***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Seoul Nat'l. Univ)

한 農產物 輸入에 對應한 生産性 提高 때문에 우리 固有의 農業基質과 先人들의 智慧를 돌볼 餘有조차 갖지 못해 왔다. 비록 오늘날에는 世界的으로 前例가 없을 程度의 集約度 向上에 의한 높은 土地生産性を 構築하기에 이르렀으면서도 土地보다는 勞働이 農業生産의 制限因子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高度화된 西歐農法의 勞働生産성에 밀려 農業 自體가 매우 憂慮되기에 이르렀다.

現代 科學의 所産으로서 農業技術은 물론, 土地의 單位生産力을 增大시키는데 一翼을 담당하였음에 틀림없으나, 賦存資源과 自然與件이 豐足하지 않은 곳에서는 現代의 高度集約化한 農業生産體系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로 막대한 生物的代價(Biological Cost)를 支拂해야 하며 우리를 制約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先祖들은 과연 어떤 理致와 方法으로 對處하여 克服해 올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앞서 農耕文化를 형성해 온 中國大陸의 智慧 가운데서 무엇을 취하여 어떻게 適應시킬 수 있었고,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修正하고 補完하여 再創出한 技術은 어떤 것이며, 이들 가운데 우리의 오늘과 將來를 위하여 提示될 수 있는 事項이나 敎訓은 무엇인지 檢討하여 보는 것은 큰 意味를 지닐 것이다.

우리 앞 時代의 農事智慧를 살펴보는 데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고, 또한 많은 國內외의 學者들에 의하여 調査 研究된 바도 있겠으나, 過去 歷史의 科學性과 智慧의 集大成은 무엇보다도 農書를 통하여 合理的으로 수록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農書들은 中國大陸으로부터의 影響을 連繫性있게 살필 수 있는 便利性을 提示하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研究은 朝鮮時代에 編纂된 農書들의 內容 중에 栽培技術과 벼의 種類 및 品種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栽培技術에 관한 考察에서는 흐름이 크게 달라진 時代別로 이를 대표할만한 差異가 있으면서 內容敘述이나 資料根源에 差異를 보이는 農書로 「農事直說」(1429), 「農家集成」(1655), 「山林經濟」(1682), 「課農小抄」(1799) 및 「千一錄」(1800年大初)을 選擇하여, 벼栽培 全般에 關하여 記述한 內容을 比較 檢討하고 綜合 整理 考察하였다. 단 「農家集成」에는 「農事直說補」(「農事直說」에 一部 內容 補完), 「衿陽雜錄」(1491), 「四時纂要抄」(1481 前後), 및 朱子の 「權農文」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引用 項目別로 原文 出典을 밝혔다.

벼의 種類나 品種에 관한 事項은 위의 다섯 農書와 「增補山林經濟」(1766), 「放事新書」(1771), 「海東農書」(1798-9), 「農書總論」(1799), 「杏蒲志」(1825), 「農政會要」(1830), 「林園經濟志」(1842)의 7 農書를 합친 12 種 가운데 다른 農書와 중복기재된 것으로 判斷되는 「農家集成」, 「課農小抄」, 「千一錄」, 「林園經濟志」와 品種 特性에 대한 言及이 미흡한 「農政會要」 및 벼 종류를 分類群으로서 言及한 것으로 判斷되는 「農事直說」을 제외한 6 農書를 對象으로 調査 整理하였다. 물론 中國의 대부분 農書들도 다분히 先人들의 內容을 移記 또는 引用하여 編纂한 것들이듯이,³⁾ 우리나라의 農書들도 中國의 農書를 비롯한 先人들의 著述을 약간씩 補完하면서 옮겨 編纂한 性格을 띠므로, 各各 그 時代의 農事形態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주어진 時代를 經過하면서 必要한 것을 찾아 農民들에 대한 政策 및 教育指標로 삼았거나 技術普及 指針으로 삼았던 內容들로서 意味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考察을 통하여 導出된 主要 農事技術은 當時代의 指導層이 갖는 農業技術觀인 동시에 問題 克服을 위한 우리나라 農業 本然의 對應策이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더우기 本研究은 이들 過程을 통하여 얻어지는 原理와 屬性을 장차의 우리 農業이 當面할 問題 解決에 도움이 될 智慧의 産室로 삼고자 意圖하였다.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半萬年の 歷史를 이어 오면서, 비록 中國의 影響을 絶對的으로 받기는 했지만, 우리 나름의 農耕文化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反復된 外勢侵略과 對內的인 黨派싸움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安定的이면서도 持續性있는 農業生産基盤(施設, 技術, 資材 및 社會與件等)의 維持發展은 期待하기조차 어려웠다고 보겠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全般的인 物量과 規模는 刮目할 만큼 增大되었음에 틀림없지만 當面하고 있는 問題의 性格은 예나 다름이 없다. 日帝植民時代와 6.25 動亂을 거치면서 農業生産力의 收奪과 破壞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美國의 剩餘 農產物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한 때 世界 두번째의 쌀 輸入國으로 轉落하여 허덕

이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 綠色革命이라 불리울 만큼 쌀의 生産力을 높일 수 있는 轉機를 맞게 되었고, 1980年代末인 現在에는, 쌀의 自給自足은 물론, 剩餘分 쌀의 貯藏 부담이 加重되면서 벼 生産을 抑制해야 한다는 減産說이나 安保의 次元에서의 維持說, 또는 쌀의 새로운 消費創出論들이 論議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現實은 쌀의 生産力이 向上된 한편으로 쌀의 消費가 減少된 데에 따른 結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安定性있고 確實한 農家所得源으로서의 모든 可能한 農耕地를 總動員하여 選好性있게 稻作을 營爲하게 되었던 데 따른, 다시 말하면 餘他の 田特作物이 度外視되면서 이루어진 稻作選好의 結果이기도 하여 問題의 特異性을 나타낸다고도 하겠다.

이런 事由로, 田特作物을 위시한 農産物의 輸入要求度는 漸增하게 되었고 特히 國民所得增大에 따른 食生活樣式의 變化는 새로운 品目, 보다 높은 品質의 農産物 輸入을 要求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農家戶當耕地面積이 不過 1.2 ha에 지나지 않는 小規模營農體制의 우리나라 農業에 不遠間 農産物의 全面輸入開放이 招來할 새로운 狀況은 實로 可恐할 만한 것으로 推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當面한 農業生産構造는 이제 어떤 方法과 內容으로 方向을 設定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점에서 本研究가 修行되어야 하는 必要性과 그 意義가 強調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農業生産力을 가능하게 할 農業의 智慧, 즉 農業技術論은 單純하게 그 自體로서 把握되거나 다른 것과 比較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農業이 處하고 있는 生産與件으로서의 屬性, 즉 그 나라의 社會, 經濟 및 政治狀況과 密接한 關係下에서 評價되어야 한다. 農業生産力은 곧 國家經濟를 뒷받침하고, 國家社會는 農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相互作用의 原理로 成立되기 때문이다.

中國의 例를 보아도,⁴⁾ 春秋戰國時代의 鐵器文化가 보다 強度 높고 效率 높은 農器具를 出現시켜 農業生産性 向上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에 農家單位의 個別營農을 가능하게 하였고, 秦의 農耕水利灌溉事業은 後日 天下統一의 經濟基礎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이미 高麗末까지 歲易農法을 常耕農法으로 發展시켰고 谷間山地에서 沿海

岸의 低濕地까지 開畝範圍를 늘렸으면서도 農莊制의 擴大와 土地私有化, 政治紊亂 등으로 國家敗亡을 招來하였다. 多幸하게도 朝鮮時代 初期에 「農事直說」을 비롯한 農書의 刊行과 함께 農地의 外延的 開發 施策의 結果로 農業生産力을 向上시킬 수 있었기에, 이 當時의 찬란한 文化發展을 朝鮮時代의 金字塔로 남기게 되었다.^{5,6)} 反面에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고 四色黨爭을 일삼던 朝鮮時代 中期에는 農業生産力이 減退되었을 뿐만 아니라 農書의 編纂도 극히 소홀하였으며, 朝鮮時代 末期에는 實學派 學者들에 의한 農業政策論이 本分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土地와 租稅制度의 紊亂이나 貪官汚吏들의 노략질이 盛行하면서 農業生産力은 極도로 低下하고 結局에는 日人들의 손아귀에 國家運命을 내맡기고 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工業業을 主軸으로 하는 最近의 國家發展 model을 보더라도, 日本의 例나 우리나라 最近의 事例에서 그러하듯이, 農業의 犧牲위에서 國家經濟復興을 이룩하는 樣相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또 다른 問題를 提起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當面하는 問題는 農産物 全面輸入開放에 對應하기에 한 土地生産性과 勞動生産性의 兩面的 向上에 있다. 國民所得 向上에 따르는 새로운 作物과 높은 品質의 農産物 需要들이 땅에서 供給하도록 하는 同時에 國民들이 選好하는 우리 固有의 農産品을 何時라도 供給할 수 있도록 周年 生産하거나 貯藏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供給體制는 集約的인 營農技術을 適用함으로써만 可能한 것이므로 勞動生産性의 側面에서는 不合理한 點을 면할 수가 없다. 反面에 國民의 日常食糧과 生存을 위해 安保의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一般農産物生産에서는 低廉한 價格을 保障하도록 大面積에서의 大量生産을, 省力的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土地面積을 늘리거나 土地利用度를 提高해야 可能하며 土地生産性의 側面에서는 不合理한 點을 脫皮하기 어렵다. 이와 매우 類似한 狀況이 朝鮮時代의 中後期 農業에서 이미 再現되었던 事實을 우리는 認定할 수가 있다.

當時의 우리나라 農業技術上으로 보면, 條播法과 苗種法이 普及되었고 地力維持增進을 위한 肥料準備 및 施肥要領이 마련될 수 있었으며, 作業能率을 높일 수 있는 農器具의 開發, 作付體系의 發達, 生態적으로 合當한 品種의 導入 및 普及이

可能하게 됨으로써 勞力を 大幅 節減시키면서도 所出은 倍加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結果로 인한 剩餘勞動力으로 보다 集約的인 營農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廣作農이 成立될 수 있었다.

學者들이나 記錄된 資料에 따라서는 이들 두 가지 形態의 營農方式 가운데 어느 한 쪽에 比重을 두고 當時 農業의 屬性을 단편적으로 規定하는 傾向이 있다. 趙世烈⁷ 등에 의하면 當時의 水稻 移秧法이 비록 實現은 되고 있었지만 降雨(春旱等)나 地方維持上的 制約 때문에 限界性이 있었으며, 따라서 一部の 富農을 제외한 大部分의 경우에는 餘分の 勞力を 利用한 多肥農法을 主軸으로 하여 集約農 形態의 營農을 하였고, 이런 點으로 미루어 朝鮮時代 後期에는 集約的 小農化 傾向이 認定된다고 하겠다. 또한 徐昇煥⁸도 移秧法으로 中耕除草效率이 높아지고 施肥法 發展으로 畚二毛作이 可能하게 되었던 點을 들어 廣作보다는 集約農法이 發展하여 地主制下에서의 小作制가 胎動되었다고 하였다. 이 點에서는 金相昊⁹ 등도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世宗實錄」 地理志의 記錄上에 나타난 水田과 旱田 結數 比較值가 27%와 73%이었으나 1905年の 日人들 調査值로는 75%와 25%로 變化하였으며 이들 變化가 주로 三南에서 이루어졌던 點을 들어 移秧法은 크게 普及되었지만 여기에서 남은 餘力은 山地休閑田이나 火田의 增大를 통한 作付體系의 發達을 이룩하여 結局은 集約農으로 轉換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金容燮^{10,11,12} 宋贊植¹³ 등은 “移秧農法으로 生穀은 倍이었지만 功力은 半”이었다는 正祖 23年의 「日省錄」을 들어 移秧法으로는 富益富 貧益貧의 現象이 誘發되었고, 이에 대한 贊反論은 朝鮮時代 末期까지 계속되었지만 結局 地主들을 中心으로 하는 勢力家들은 數倍씩의 넓은 土地를 占有하게 되어 廣農 經營을 營爲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써 여기에서 主役이었던 支配階級層의 農業史的인 側面은 肯定的으로 評價될 수 있으며, 이 當時의 廣農法이 中國에서의 그것과 比較하면 點은 結局 土地生産性을 떨어뜨리지 않는 範圍에서 움직여졌던 點에 있다고 「杏蒲志」(1825)의 例로 들어 說明하고 있다. 이는 禹夏永의 「千禧錄」에 나타난 “今則民皆懶農 農事廣作 雖其可(谷米種之處)亦皆注秧”이란 대목으로서도 잘 알

수 있다.

反面에 廣作으로 所有農家の 栽培面積은 5倍로 增大하였지만 勞動力은 約 8割이나 減少되었다고 한다.¹⁴ 이런 結果로 失業者와 流浪民이 急増하고 都市로의 離農現象이 일어나 當時의 肅宗 20年의 「承政院日記」에는 “加以數十年間 移秧地法 盛行於諸道 有之(土)者幸皆自耕故 無土者斷無入作之路 旋日旋散 終爲失業之民”이라 처참하게 表明하고 있다. 즉 廣作農의 實現은 農學發達上 重大한 意味를 지니긴 하지만 朝鮮朝의 滅亡은 廣作農의 誤用으로 빚어진 紊亂하고 빚나간 社會相에 起因한 것으로까지 解析되고 있다.^{15,16)}

그러나 宮嶋¹⁷는 이에 그치지 않고 附言하되, 朝鮮農業의 特性은 上記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으며 苗種法과 付種法, 즉 濕潤地農法과 旱地農法을 地域적으로 獨特하게 融合시켜 이룩하는데 成功했었던 唯一한 model이었으며, 日帝의 植民農業政策에 의해 旱地農法이 相對적으로 隔差를 나타내게 되었을 뿐 結局 農業 전체의 方向轉換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點에서도 本研究가 明白히 把握하고자 하는 것의 하나는, 우리나라 自然立地 위에 세워졌던 農産形態와 이를 뒷받침한 農産技術, 그리고 이의 發展方向과 制約要因을 밝히고 오늘의 向方을 透視해 보고자 하는 점이다. 즉 稻作技術을 中心으로 하는 우리의 農業이 우리나라 立地와 歷史的인 社會文化的 흐름 및 農業의 屬性을 통하여 中國의 農學을 어떻게 受容하였고, 우리의 獨自的인 어떤 農學을 創出하였으며, 이들 傳統農學이 어느 時點에서 어떤 位置에까지 到達하였고, 이들의 農耕文化史的 役割을 어떻게 評價할 수 있으며, 과연 日帝의 植民農業技術을 무리없이 받아들여 消化해 낼 수 있었을까. 또한, 朝鮮時代 後期에는 實學者들을 중심으로 改革을 試圖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中國의 農學을 再輸入하여 우리의 農學을 補強하고자 하였음에도 結果的으로는 日本의 農學을 우리의 傳統農學에 接木시키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 原因은 旱田條件을 바탕으로 하여 계승된 우리의 集約農法을 抹殺한 대신에 地主 및 支配層만의 交替를 통한 廣作農法의 維持形態이었기 때문에 보다 손쉬웠던데 연유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理解의 增幅과 함께 本研究가 意圖하는 것은 우리가 喪失한 集

約的農法의 眞髓를 歷史的 脈絡에서 밝히고자 하는 點이다.

宮嶋¹⁸⁾도 言及한 바 있듯이, 朝鮮에는 王朝記 錄이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게 많은 반면, 地方이나 村落에 대한 記錄은 거의 없는 形便이며, 따라서 農業生産力을 歷史的으로 조감하기 위해서는 小規模 經營의 變遷相을 가장 잘 反映하는 時代別 農書를 體系있게 比較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제까지 古典農書들을 通하여 밝힐 수 있었던 朝鮮時代 農業技術의 變遷要因은 水利與 件을 비롯한 生産基盤의 制約, 農作業 效率을 左右하는 農器具의 開發 差異, 除草管理에 投與되는 勞動力의 單位 差異, 地力을 維持하고 增進시킬 수 있는 施肥源의 確保方案 有無 등으로서 이들은 곧 生産性 變化에 先行되고 있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水利施設을 비롯한 重裝備 農機械와 高度選擇性的인 除草劑 및 其他 農藥들이나, 化學肥料 등이 손쉽게 供給되고 있기 때문에 農業技術의 變遷을 불가피하게 했던 이제까지의 모든 制約要因들은 많이 解消된 셈이다. 이제 農作物의 收量性(土地生産性)向上을 위하여 生理生態的으로 合當하고 勞動生産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省力栽培方式이 成立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어떤 形態로도 復歸해야 할 좋은 時點에 와 있다.

中國江南의 原始的 農法을 代表하는 ‘火耕水耨法’부터 出發하여¹⁹⁾ 李鎬澈²⁰⁾이 우리나라 固有의 農耕術로 주장하는 ‘水稻直播連作法’이나 散播에 의한 ‘均撒栽培法’, 金容燮²¹⁾이 우리나라 氣象特性(春旱現象)에 비추어 우리나라 固有技術이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水稻乾播法’, 趙世烈²²⁾이 「千一錄」의 禹夏永의 主張을 빌어 生産性 높은 技術로 分析했던 ‘集約的多肥農法’ 등까지 再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들 技術의 科學的 妥當性和 合理性을 評價하고 오늘 우리의 方向을 위해 提示하는 바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勞動生産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廣作農法의 原理를 評價하되 우리나라의 社會構造로 보아 土地所有 規模를 고려한 適正의 限田論을 再考해야 하며, 國土限度를 고려하여 土地生産性을 極大化시키기 위한 作付體系나 作目追加 等の 技術, 즉 土地利用度 提高方案과 小農의 集約農法 技術原理도 찾아야 할 立場에 있다.

本研究은 이러한 點들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稻作傳統의 成立過程과 具體的인 技術內容의 變化

過程을 살피고, 이를 위하여 影響을 크게 미쳤던 中國大陸의 稻作農業技術을 前提的으로 比較檢討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으며, 또한 技術變化의 結果가 새로운 技術을 受容하는 데 이바지한 役割을 論理的으로 理解하려는 데에 힘을 모았다. 이는 곧 우리가 現在 當面하고 있는 오늘의 稻作技術. 發展方向 摸索에 ‘溫故而知新’의인 基礎論理로 提供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研究方法 및 範圍

本研究은 朝鮮時代に 時代相을 달리하여 編纂되었던 代表的 農書들을 中心資料로 하여 當時의 우리나라 農事技術 導入過程과 取捨選擇 與否 및 우리 固有의 土地에 맞도록 개술된 內容을 相互間에 비교 檢討하고, 이들의 現實性和 合理性을 傍證하기 위하여 中國의 農書, 朝鮮王朝의 記錄 및 現今까지 國內外 學者들에 의하여 研究調查된 論文들을 參考하여 앞에서 導出 提示하였던 問題 究明에 接近하고자 하였다.

接近 方法으로는 첫째로 우리나라의 實際的 最初 農書인 「農事直說」에 引用된 中國農書 「齊民要術」 및 元代까지에 刊行되었던 農書들의 農事技術 內容과 이들 技術의 우리나라 適應性 與否를 評價하고, 이들에게서 우리나라 當時의 固有技術 內容을 分別하며, 둘째는 時代를 달리하면서 編纂된 以後의 農書들에서 「農事直說」의 再引用, 새로운 中國農業技術의 再導入, 獨自 技術의 發掘이나 創出, 技術 變遷의 一貫性이나 合理性, 또는 이들 새롭게 執筆된 새로운 技術이 農業史的으로 미치게 된 變化나 그 意味를 찾아 보았다. 셋째는, 王朝中心의 記錄들과 對照하여 現實性 및 社會與件과의 關聯性을 檢討하여 相互作用 效果를 考察하는 동시에, 넷째는 앞선 農書 編纂者 및 研究者들이 解釋 評價한 內容에 대하여 科學性 與否를 判別하고 이를 통하여 眞髓와 誤謬를 바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는 오늘의 우리나라 農業이 當面하는 類似한 問題性에 대하여 提示하는 바를 導出하고자 하였으며, 여섯째는, 各 農書들에서 言及하고 있는 各種類나 品種에 대한 特性을 綜合 整理함으로써 當時의 多樣하고 未開發된 生産 與件下에서, 또는 쌀의 多樣한 食品 利用을 위하여 어떻게 品種 選擇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特性들이 이들 條件에 잘 適應하도록

取擇되고 있었는지를 關聯性 있게 살피고자 하였고, 일곱째는 우리나라 古典農書 研究나 古代農業 技術을 研究하는 데 따른 새로운 假設을 導出 하려고 하였다.

本研究의 參考資料로 利用되었던 朝鮮時代 主要 古農書들의 編纂 背景, 著者の 執筆 意圖, 農業 技術史的 意味 및 參考된 中國農書 資料들을 概括하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朝鮮 時代 主要 農書

書名	著者 및 年代	內 容
「撮要新書」 ²³ ‘以下「新書」’	朴興生 1415-1429 ?	利用厚生에 관한 雜書로서, 陰陽五行과 農事, 吉區日 選擇에 있어서 大甲에 치중한 감이 있으나 當時의 農法이나 지도층의 思考方式이 잘 反映됨. 中南部地方 農法反映. 「雜陰陽書」, 「汜勝之書」, 「志林」, 「四時纂要」, 「農桑輯要」, 「養蠶經驗輯要」 參考.
「農事直說」 ²⁴ ‘以下「直說」’	鄭 招 1429	王命에 의해 各道 觀察使로 하여금 경험이 많은 農夫들로부터 農業 技術을 聽取 취합하여 엮은 農業 技術書임. 一般耕種農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農書로서 表現方法에 있어 「農桑輯要」의 影響을 받았으나, 순수한 우리의 農業 技術로 慣行되어 오는 것을 綜合한 農書임. 「農桑輯要」, 「四時纂要」 參考. 中國 華北地方農法 反映.
「四時纂要抄」 ²⁵ ‘以下「纂要抄」’	姜希孟 ? 1419 前後	唐宋의 實學者 韓鄂이 編纂한 農業 綜合技術書인 「四時纂要」에서 韓國農業에 必要한 部分을 알맞게 抄錄한 것으로, 抄錄 當時의 農業 技術 및 食品加工 등을 理解할 수 있음.
「衿陽雜錄」 ²⁶ ‘以下「雜錄」’	姜希孟 1491	一般 農業에 관한 農業 技術書로, 衿陽은 오늘날 京畿道 시흥과 陽川의 옛이름임. 著者가 이곳에 隱退하여 있는 동안 이 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이며, 當時의 慣行農法과 著者 자신의 體驗을 통하여 著述된 實踐的 農書임
「攷事撮要」 ²⁷ ‘以下「撮要」’	魚叔權 1514	一般農事關係는 빠져 있으나 「農事直說」과 「衿陽雜錄」以後에 「山林經濟」가 나오기 전까지의 畜産, 食品, 量田 등에 대한 記錄이 農書의 脈을 이었다는 意味가 있음.
「閑情錄」 ²⁸	許 筠 1610-7	中國 古書를 參考하여 退官後 隱遁 生活을 하는 閑者들을 위해 編纂한 綜合農業 技術書로, 모두 38면의 간략한 內容이며 그 後의 農書 編纂에 參考가 된 農書임. 王禎 「農書」, 「師曠占術」, 「衿陽書」, 「養魚經」等 引用, 中國南方農法 反映, 農業經營에 대한 개념이 導入된.
「農家集成」 ²⁹ ‘以下「集成」’	申 涇 1655	農林水産에 관한 綜合農業 技術書로, 板本에 따라 3-5種의 것을 合本한 것이지만 단순한 合本이 아니라 著者 自身이 이를 철저히 消化하여 자신의 主觀을 加味한 合本으로 볼 수 있음. 中國北方(「四時纂要」) 및 南方(「朱子勸農」) 技術을 同時에 收錄함.
「穡經」 ³⁰	朴世黨 1676	「穡經」이란 말은 農事に 관한 經書라는 뜻이며, 「農家集成」의 초판본이 나온지 21年 만에 기존 農書의 결함을 보충하고자 著者의 비장된 圖書를 參考하여 著述한 것이라 하나 「農桑輯要」를 大部分 母本으로 하고 있음. 이 책은 農業 技術面보다는 農學의 體系化를 위한 方法面에서 그 뒤의 農學에 影響을 주었다는 데 意味가 큼.
「穡經增集」 ³¹ ‘以下「增集」’	朴世黨 ? 1688-9	「穡經」의 미비점을, 補完, 體系化하였고 우리 農學을 體系化시키는 方法面에서 「穡經」과 더불어 後日의 農學에 큰 影響을 미쳤다 할 수 있음.

書名	著者 및 年代	內 容
「山林經濟」 ³² ‘以下「經濟」’	洪萬選 1682	綜合農業技術書로 後日 「增補山林經濟」와 「林園經濟志」의 母本이 되었으며, 우리 農學사의 重要 書誌 中の 하나임. 「神隱纂要」, 「顏說」, 「陰陽書」, 「農事直說」, 「農家集成」, 「衿陽雜錄」, 「閑情錄」 등이 引用됨.
「農家要訣」 ³³ ‘以下「要訣」’ 「厚生錄」 ³⁴	未 詳 辛仲厚 1767年 以前	綜合農業技術書로서, 「山林經濟」以後의 農業技術事情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됨. 「山林經濟」抄錄 細註. 「山林經濟」以後의 傳統農書로서, 「增補山林經濟」가 나오기까지 50-60年間的 우리 慣行農法을 大部分 收錄하고 있다는 點에서 農業技術史上 귀중한 資料임. 穀類 등이 포함된 上卷 缺本. 「四時纂要」, 「神隱書」, 「齊民要術」, 「汜勝之書」, 「便民圖」, 「農桑通訣」, 「壽養書」, 「本草綱目」, 「農書」 및 農政全書, 東坡, 吳起 等の 中國人의 說 引用.
「考事新」 ³⁵ ‘以下「考事」’	徐命膺 1771	官撰事業으로 編纂한 官吏를 위한 綜合農書格인 業務指針書, 「暎事撮要」를 添削 補完한 것이나, 農業關係는 「山林經濟」에서 大部分 導入.
「增補山林經濟」 ³⁶ ‘以下「經濟補」’ 「本史」 ³⁷	柳重臨’ 1766 徐命膺 1787	「山林經濟」를 繼承 發展시킨 것으로 우리 農學의 骨格을 이루는 중요한 農書임. 「山林經濟」를 增補. 綜合農業技術書로, 「內容이 豊富하고 外國의 植物까지 소개, 外國의 知識을 導入하려 노력하였고, 農作物의 歷史的 來歷을 記錄하고 있음.
「北學議」 ³⁸ 「進北學議」	朴齊家 1782, 1798	朴齊家가 쓴 紀行文과, 一般農事 中心의 「進北學議」를 합한 것으로, 「進北學議」는 「應旨進北學議疏」 및 「北學議」 內外 篇에서 農事關係를 初出하고 水利, 地理, 農器具 等を 添加 完成한 것임.
「海東農書」 ³⁹ ‘以下「海農」’	徐浩修 1798-9	綜合 農業技術書로 部分的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 部分이 있으나, 우리 農學의 主流를 이루어 온 「農事直說」, 「農家集成」,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等の 農學體系를 繼承하였다는 點에 보다 큰 意義가 있음. 王禎 「農書」, 「農政全書」, 「汜勝之書」, 「齊民要術」 等の 中國農書와 「農事直說」, 「農家集成」, 「衿陽雜錄」, 「增補山林經濟」, 「醫鑑草本」 等を 參考. 農政 및 農業技術에 관한 綜合農書로서, 實學者인 著者는 國內外 農書를 引用參考하고 자기의 意見이나 批評을 附記하였음. 「農政全書」 參考.
「課農小抄」 ⁴⁰ ‘以下「小抄」’	朴趾源 1799	農業通論的인 農書로 農事를 綜合的으로 다룬 點과 當時의 農地面積 統計를 記錄하고 있는것이 特徵이나, 農事技術 體系化에는 소홀한 감이 있음.
農書總論」 ⁴¹ ‘以下「總論」’	趙英國 1799	經濟生活 全般에 관한 책으로 體制 내에서 農業 生産 技術을 改良하여 生産力을 높임으로써 이 時機의 農業問題를 解決하려 했다는 點에 特徵이 있음. 各 道의 農業狀況 敘述, 「農事直說」 및 「農家集成」 原文에 著者 意見 附記함.
「千一錄」 ⁴²	禹夏永 1800年代初	農作物栽培에 관한 技術書로, 後日 「林園經濟志」 元成을 위한 初本으로 보임.
「杏蒲志」 ⁴³	徐有榘 1825	綜合農業技術書로 內容이 多様하고 豊富하나 內容의 整理面에서는 初稿의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9世紀를 代表하는 實學者에 의해 엮여졌다는 면에서 意義가 있으며 當時의 農業技術史 整理에 중요한 參考가 될 것으로 보임.
農政會要」 ⁴⁴ ‘以下「會要」’	崔漢綺 1830	綜合農業技術書로 內容이 多様하고 豊富하나 內容의 整理面에서는 初稿의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9世紀를 代表하는 實學者에 의해 엮여졌다는 면에서 意義가 있으며 當時의 農業技術史 整理에 중요한 參考가 될 것으로 보임.

書名	著者 및 年代	內 容
「農政書」 ⁴⁵	崔漢綺 ? 1834-79 ?	綜合農業技術書로 初稿本처럼 整理가 덜된 감이 있으나, 「農事直說」, 「山林經濟」, 「林園經濟志」, 「海東農書」等 우리 傳統農書와 더불어 農學의 學的 體系를 세우는 데 根幹이 될 것으로 보임.
「林園經濟志」 ⁴⁶ ‘以下 「經濟志」’	徐有渠 ? 1842	綜合的인 體系를 갖춘 農書로, 引用書目을 명기하였고, 實學의 發達에 따른 成果를 反映하고 있다는 點 등이 높이 評價되며 主體的 立場에서 綜合 整理한 점과 引用書名을 밝힘으로써 실진된 農書를 部分的으로 再構成할 수 있다는 點이 특기할 만하며, 農業史 研究에 귀중한 資料임.
「灌畦志」 ⁴⁷		「林園經濟志」의 第2志로 편입되어 있는 菜蔬栽培에 관한 技術書임.
「竹橋便覽」 ⁴⁸ ‘以下 「便覽」’	韓錫敷 1849	상례, 祭禮, 博物에 관한 책으로, 各種 農業技術의 時代間 比較檢討와 農業技術史研究에 重要 參考 資料임.
「農圃問答」 ⁴⁹ ‘以下 「問答」’	李大奎 1872	問答式의 農政書로, 技術의 이라기보다는 觀念的으로 一貫된 農書임.
「農政新書」 ⁵⁰ ‘以下 「農新」’	安宗洙 1881	土壤, 肥料 및 耕種에 관한 農業技術書로 崔漢綺의 西歐 水利技術 導入 以後, 순수 農學의 立場에서 西歐農法을 最初로 導入하였다는 面에서 그 意味가 매우 크나, 新農法을 우리나라에서 試驗해 보거나 傳統農書와 比較 檢討를 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음.
「農務牧畜試驗場 所存穀菜種」 ⁵¹ ‘以下 「穀菜種」’	未 詳	開化 初期의 作物 導入 年代를 알아본다거나 當時의 品種을 理解하는데 參考가 되며 最初로 實施한 試驗栽培 記錄으로 農業技術史 研究에 귀중한 資料임.
「農政撮要」 ⁵² ‘以下 「農撮」’	鄭秉夏 1886	土壤, 肥料, 主穀, 作物, 木花, 담배 등의 栽培法을 綜合한 技術書籍으로, 西歐農法을 導入한 日本의 農法을 再導入한 것으로 土壤과 肥料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當時 開化派의 農業觀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最初의 國漢文混用의 農書임.
「重麥說」 ⁵³	池錫永 1888	麥類栽培에 관한 技術書로 日本書籍을 抄錄한 것으로 보이며, 傳統 農學이 西歐式 農學으로 옮겨가는 過程을 볼 수 있는 資料임.
「潛叟慢錄」 ⁵⁴ ‘以下 「慢錄」’	未 詳	著者 및 年代를 알 수 없는 雜錄으로 園藝에 관한 記錄이 일부 있음.
「韓國之農業」 ⁵⁵	小島喜作 1904	忠淸, 全羅, 慶尙道 等 6個道의 農業事情을 49日間에 걸쳐 調查한 報告書로 日帝侵略을 위한 基礎資料로 作成되었으나 當時 우리나라의 營農法, 農地制度를 理解하는데 좋은 資料임.
「韓國農業論」 ⁵⁶	加藤末郎 1904	1898-1900年 前後의 韓國農業 全般에 關해 調查記錄한 것으로, 日人들의 侵略을 위한 指針書로 作成되었으나, 1900年 前後의 우리 農業全般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위의 表로 소개된 農書들 가운데, 本研究의 主流인 벼 農事栽培技術의 分析 考察에 직접 引用된 主要 農書에 대하여 보다 詳述하여 本論의 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農事直說

「直說」은 1429年(世宗 11年)에 鄭招가 왕의 命에 따라 各道 觀察使로 하여금 經驗이 많은 農夫들로부터 農業技術을 淸취, 취합하여 엮은 農業技術書이다. 「直說」을 編纂하게 된 直接的 動機는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風土가 다

름에 따라 作物의 栽培法도 마땅히 달라야 하는 바 古書(中國農書)의 記錄과 우리의 栽培法이 모두 같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鄭招는 朝鮮 初期의 文臣으로 1405年 文科에 及第하여 金堧이 되고 1407年 文科中試에 及第하였다. 1419年 工曹와 禮曹參議, 咸境道 觀察使를 거쳐 工曹判書를 지냈는데, 「直說」을 엮은 것은 工曹判書로 있을 때였다.

우리 農業은 高麗時代에 休閒農法이 實行되어 오다가 麗末, 鮮初에 이르러 連作農法으로 轉換되면서 休閒 위주의 華北農法을 다룬 中國農書는 耕種面에서나 風土面에서 우리 農業現實에 맞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 風土에 맞는 農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風土에 맞는 農法을 이미 經驗한 老農들에게 물어서 撮要할 수밖에 없었고, 世宗은 즉위 10年の 4月과 7月의 2차에 걸쳐 三南의 各道 監司에게 이와 같은 作業을 指示하고 그 結果를 傳達토록 한 것이다. 忠淸, 全羅, 慶尙등 三道の 農法을 물은 것은 선진된 三道の 農法을 西北地方에 보급코자 하는데 政策的인 뜻이 있었으며, 各道에서 전달된 農書는 그대로 1천부를引出하여 1429年 반포하였으나 內容이 煩雜, 疎漏하여 同年 5월에 鄭招와 下孝文등에 命하여 이를 수정케 하고, 翌年인 1430年 2월에 이 책을 完成하여 이때 「農事直說」이라 이름짓게 되었다.

이 「直說」은 當時 가장 많이 利用되었던 「農桑輯要」를 많은 部分 參考하고 있는데, 이 「農桑輯要」는 1273年 元나라 司農司가 王命으로 編纂한 7권 3책의 元代의 代表的 農書이다. 그 內容은 勸農官을 郡邑에 순행시켜 當時의 實行農法을 採錄한 것이지만, 그 저본은 6世紀의 農書인 「齊民要術」을 많은 部分 引用하고 있다. 「直說」과 「農桑輯要」의 技術內容이나 표현방법이 유사하고 이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 農法과 中國 華北地方의 農法이 과거 비슷하였으므로 中國農書의 표현을 그대로 引用하여도 무방한데 緣由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서도 「直說」의 표현은 中國農書와 달리 細部의인 技術的 풀이에서 조금 더 具體的으로 技術하고 韓國的인 農法을 살리고 있는 點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2. 農家集成

「集成」은 1655年(孝宗 6年) 申沔에 의해 編著

된 農林畜産에 관한 農業技術書이다. 申沔은 朝鮮 先祖-顯宗 當時의 文臣으로 1644年 榮州郡守 때 文科에 及第하여 持平, 弼善, 參議 등을 지내고 承旨 등 要職의 물망에 올랐으나 1656年 外叔인 金自點이 逆謀로 처형당하자 楊州, 公州, 淸州牧使 등의 外직으로 전전하게 되었으며, 이 「集成」은 公州牧使로 있을 때 編著한 것이다.

「集成」은 1655年 王命으로 校書館에서 鑄字로 發刊된 것을 필두로 여러 異版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책이 刊行된 다음해인 1656年 全羅道 觀察使 趙啓遠이 復刊한 것을 20年 후인 1686年(肅宗 12年)에 武城(現 全南 영암)에서 再復刊되어 있으며, 책의 目錄에는 上篇에 「四時纂要」와 附錄으로 「救荒撮要」가 收錄되어 있다고 記錄되어 있으나 本文에는 「救荒撮要」가 缺本된 채, 「農家集成書 下篇綜」이라 記錄되고, 申沔 跋文 등이 연이어 있는 것으로 보아 復刊 過程서 缺本된 것으로 推定된다.

內容에 있어 「勸農教文」은 農事에 관한 訓示의 內容으로 되어 있고, 「直說」에는 既存의 「直說」에 當時 一部 地方의 慣行을 收錄한 것으로 믿어지는 增補分이 收錄되었다. 朱子의 「勸農文」은 農民들에게 行政指示를 주지시키기 위하여 作成된 것으로 「勸農文」의 技術水準을 判斷하기는 어려우나, 「集成」의 한 部分으로서 「直說」이나 「雜錄」의 일부를 보충하는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 「雜錄」을 姜希孟이 退官後 衿陽에 隱居하며 老農등과의 대화나 農事의 經驗을 살려 著述한 것이며, 「纂要抄」部分에서는 唐末 韓頤이 쓴 華北地方 中心의 月令式 農書인 「四時纂要」를 姜希孟이 初錄한 것을 그대로 收錄하였으며, 初錄 當時 한글로 곳곳에 토를 달거나 우리 慣行 農法을 附記한 것 등으로 보아 韓國化된 內容을 中心으로 初錄하였고 「四時纂要」 이외의 農書에서도 部分的으로 抄錄 挿入하고 있다.

3. 山林經濟

「經濟」는 洪萬選이 지은 綜合農業技術書로 著述 年度는 정확하지 않으나 著者의 生存年代로 미루어 17世紀 末葉이나 18世紀 初葉에 著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洪萬選은 1666年(顯宗 7年) 進士試驗에 合格하여 30年間 尙州牧使 등 地方官으로 다니다가 掌樂院 正이 되었다. 柳馨遠과 同時代 人物로 實用厚生의 學風을 일으켜 實學 發

展에 先驅的 役割을 하였다. 「經濟」는 당초 무슨 動機에서 著述한 것이지 著者의 序文이나 이를 나타낸 글이 전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책 內容과 著者의 처지 등을 中心으로 檢討하여 보면 黨爭이 극도에 달하고 있던 當時의 混亂한 世態를 보며 是非判斷에 유달리 嚴格했던 著者는 벼슬을 버리고 은둔하려는 생각을 품었고, 은둔하여 책을 著述한 許筠 등의 蹟을 탐독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많은 部分 「閑情錄」을 引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直說」, 「集成」, 「雜錄」, 「閑情錄」 등과 中國의 「神隱纂要」, 「顏說」, 「陰陽書」 등을 參考하여 우리나라 農學의 學的 體系를 재정립한 귀중한 文獻으로 大部分 各 農書들을 採錄하여 引用하고 있다.

4. 課農少抄

「課農少抄」는 1799年(正祖 23年)에 朴趾源이 지은 農政 및 農業技術에 관한 綜合農書이다. 朴趾源은 當時의 實學者로 「兩班傳」 등의 小說을 지어 當時 兩班社會의 矛盾點을 批判的인 視覺에서 諷刺하고, 當時의 進歩的인 學者들과 交友하며 現實問題 및 學問的인 關心事를 講論하며 當時의 세도가와 儒學者들의 行態 등을 공격 批判하는 等으로 文名을 올렸으나, 1777年(正祖 1年) 權臣 洪國榮이 全權을 휘두르게 되자 禍를 당할까 우려하여 黃海道 金川 燕巖峽으로 隱居하게 되었다. 이즈음 燕巖의 生活은 친구의 도움으로 生計를 유지할 程度로, 隱居한 곳에서 農事지을 農土도 없던 形편이나, 오래 전부터 關心事였던 中國 및 國內 農書를 두루 涉獵하여 후일 「課農少抄」를 敘述하는 基礎가 되었다.

洪國榮이 沒落한 1780年(正祖 4年) 以後 50歲 되던 1786年(正祖 10年)에서야 그의 첫 官職인 繕工監 監役に 任命된 後 司僕寺인 主簿, 義禁府 部事, 漢城判官, 安義縣監, 沔川群守를 거쳐, 1799年 課農少抄를 完成하여 正祖께 올리고 襄陽府使로 昇進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1932년에 刊行된 朴榮喆本의 「燕巖集」 卷16에 收錄된 것을 崔洪奎가 1987年 國譯한 것을 參考하였다.

農學的인 側面에 있어 「課農少抄」는 우리나라와 中國의 農書를 綜合, 檢討하고 우리 農學의 主流를 繼承, 發展시킨다는 立場에서 主體性과 改革的인 性格을 同時에 보여주고 있다.

著述함에 있어 1636年 中國에서 徐光啓에 의해 刊行된 「農政全書」를 引用하였는데, 이는 권말에 “臣故日農政全書固非一人私智而是後如有新方妙法雖城眞出於胡狄之中士大夫去個矜字遜志願學焉然後農之道始得而公行於國中矣”라 言及한 것으로도 確認할 수 있다. 이 「農政全書」와 韓國農書인 「集成」, 「雜錄」, 「纂要抄」, 「補經濟」, 「稽經」, 「新書」, 「閑情錄」 등을 引用하고 實際的인 觀察과 體驗을 바탕으로 著者의 意見을 附加하여 當時의 內國 農業技術 現況의 問題點을 檢討하였다.

5. 千一錄

「千一錄」은 1800年代初(純祖 年間) 禹夏永이 엮은 經濟生活 全般에 관한 책으로, 이 중에 農政 및 農業技術 關係가 收錄되어 있다. 禹夏永은 水原의 한 儒生으로만 알려져 있고 國王의 求言敎에 자주 鷹旨하며, 判斷力있는 識者로서 國家經濟 全般에 걸쳐 그 實狀과 改善策을 함께 정리한 사람으로 보인다.

「千一錄」은 10冊으로 되어 있고, 이 중 農水産 關係는 1冊의 山川風土關扼, 田制와 農政, 8冊의 農家總覽, 10冊의 應旨文과 漁樵問答이며, 1804(純祖 4年)에 應旨한 原文이 收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책의 編纂이 1800年大初에 完成된 것으로 보인다.

山川風土에서는 各 道の 農業 및 副業 狀況을 敘述하였는데, 여기서 18世紀 當時의 農業現況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田制에서는 朝鮮과 中國의 土地制度를 考察한 後 大同法에 대하여 詳述하고 있다. 農家總覽에서는 「直說」, 「集成」, 「纂要抄」를 대본으로 하여 原文을 앞에 놓고 檢討함으로써 著者의 意見과 改善策을 제시하며 農業相의 問題點을 技術하고 있는데, 小規模 農地의 경우라도 集約的으로 經營하여 生産力을 增大 시킴으로서 當時의 貧富問題를 解決하려 하였다. 아울러 移秧法과 관련된 經營 擴大는 農業經營의 粗放化를 가져온다는 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井田論 등 土地改革은 時勢에 어긋난다는 點에서 施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千一錄」은 體制內에서 農業의 生産技術을 改良하여 生産度를 높임으로써 當時의 農業問題를 解決하려 했다는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摘 要

稻作은 東亞 濕潤地 農作物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古수를 통하여 國家의 財政과 食糧源을 조달하는 主役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또한 이러한 位相은, 물론 東南亞 諸國을 포함하여, 中國大陸과 韓半島 및 日本列島로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技術交流과 利害關係를 맺어오면서 형성되어 왔음에 틀림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地理의 位置로 인하여 더욱 두드러진 橋梁의 役割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더우기 文化的 交替은 물론 外侵과 內患을 수없이 겪는 동안 農業條件은 開墾과 荒廢 및 回復을 거듭하였고, 이 위에서 稻作과 稻作技術의 受容發展은 七轉八起하여 왔음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歷史는 王朝實錄을 중심으로한 朝廷의 기록은 풍부한 반면에 地方과 農村의 기록은 지극히 비약한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稻作과 稻作技術의 變遷相을 알 수 있는 길 또한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결국은 朝鮮時代 初期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던 農書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다시 綜合的으로 比較考察하면서 脈絡을 더듬는 道理밖에 없다.

本研究은 우리나라 稻作技術이 麗末까지 直輸入 되었던 古代中國의 旱田式 技術로 부터 어떻게 우리의 實情에 맞추어 성립될 수 있었고, 또한 이들로부터 獨創性을 찾아 再定立된 基幹은 무엇이며, 이들이 朝鮮時代의 과란 많은 內外亂을 통하는 동안 어떻게 存續되고 變遷해 왔으며, 이들 결과가 鮮末에 이르러 存續 發展하면서 치루어낸 역할이 示唆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引用文獻 및 註釋

1. 飯沼二郎(1983) 世界農業文化史, 八坂書房.
2. 李浩鎮, 李孝源(1985) 飼料作物學, 韓國放送通信大學.
3. 天野元之助(1962) 中國農業史研究, 街茶の水書房.
4. 天野元之助(1962) 前掲書.
5. 宮嶋博史(1977) 李朝後期農書の研究 -商業的農業의 發展と農奴制의 小經營의 解體をめぐつ

て-, 人文學報(43), pp.63-102, 京都大人文科學研究所.

6. 魏恩淑(1988) 12世紀 農業技術의 發展, 釜大史學(12), pp.81-124.
7. 趙世烈(1986) 朝鮮後期 集約農法의 發展 -「千一錄」의 分析-, 慶熙大學院博士論文, p.47.
8. 徐昇煥(1988) 朝鮮時代 農業生産性 發展에 관한 研究, 經濟史, pp.167-173.
9. 金相昊(1969) 李朝前期의 水田農業研究 -粗放的 農業에서 集約的農業으로의 轉換-, 69年度 文教部學術研究助成費에 依한 研究報告書, 人文學系 1, 서울大 師範大.
10. 金容燮(1965) 朝鮮後期의 水稻作技術 -移秧과 水利問題-, 亞細亞研究 18.
11. 金容燮(1988) 「農政要指」의 水稻乾播技術, 孫寶基博士停年紀念論文集, pp.551-574, 知識產業社.
12. 金用燮(1970) 朝鮮後期農學의 發達, 韓國文化研究叢書 2, 韓國文化研究所.
13. 宋贊植(1975) 朝鮮後期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 韓國經濟史論文選 I I, 李海南紀念史學論叢, pp.95-134.
14. 宋贊植(1975) 前掲書.
15. 宋贊植(1975) 前掲書.
16. 宮嶋博史(1977) 前掲書.
17. 宮嶋博史(1977) 前掲書.
18. 宮嶋博史(1977) 前掲書.
19. 西嶋定生(1951) 火耕水耨について, 和田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pp.469-487.
20. 李鎬澈(1984) 朝鮮後期의 水稻作法考, 東洋文化研究 11, pp.73-102.
21. 金容燮(1988) 前掲書.
22. 趙世烈(1986) 前掲書.
- 23~26. 金榮鎮(1984) 譯註 朝鮮時代前期農書, 農村經濟研究院.
- 27~29. 金榮鎮(1982) 農林水産古文獻備要, 農村經濟研究院.
- 30~32. 「農書」(1981) 亞細亞文化社.
- 33~34. 金榮鎮(1982) 前掲書.
- 35~36. 「農書」(1981) 前掲書.
- 37~38. 金榮鎮(1982) 前掲書.
39. 「農書」(1981) 亞細亞文化社.
40. 「課農小抄」(1987) 亞細亞文化社.

41. 金榮鎮(1982) 前掲書.

42~43. 「農書」(1981) 亞細亞文化社.

44~45. 金榮鎮(1982) 前掲書.

46. 「林園經濟志」(1983) 保景文化社.

47~56. 金榮鎮(1982) 前掲書.